

AI, 서해안 이어 남해안도 비상

경남 하동 오리농장·군산 육계농장 의심신고...강진 H5N8형 확진

서해안 벨트를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발생함에 이어 남해안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 경남 하동 금성면에 있는 3200마리 규모의 육용오리 농장과 5만 마리 규모의 군산 육계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두 농가 모두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N'타입과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6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강진 오리농장의 경우 H5N8형 AI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 육용오리 8800마리를 비롯해 반경 3km이내 총 5만2200

마리 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지난달부터 서해안 벨트를 따라 AI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남해안 지역인 하동에서도 AI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동 농장의 경우 규모가 크진 않지만 철새가 많은 섬진강 근처”라며 “특히 이 일대에서는 며칠 사이 서해안 벨트를 따라 발생한 H5N8형이 아니라 기존에 퍼졌던 H5N6형이 야생조류에서 최근까지도 검출된 사실이 있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의 경우 지난달 6일 AI가 발생한 김제 산란계 농장과 9.7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 철새 도래지인 금강과 민경강 자유와 가깝다.

AI 재확산 우려가 가시화되자 당국은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전남·북과 광주에 이어 충남·세종·경기·인천 지역에 대해서도 전발 지정부터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또 최근 익산에서 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그룹이 운영하는 육용종계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했고, 오리농장의 대부분이 계열화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금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일 회의를 열어 방역 미흡시 제재 조치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기자 chadol@연합뉴스



3·1운동 98주년
3·1 운동 98주년을 맞아 1일 광주 서구 상무공원 광주특별운동기념관에서 운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교육감 등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일 과거사 문제 원칙 갖고 단호히 대응”

황 권한대행 3·1절 기념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다”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제3국의 국제공방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

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이 공식적 연설에서 북한 인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과거사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檢 특수본 부활...‘피의자 박근혜’ 수사한다

뇌물수수 등 3가지 혐의 추가 내일까지 수사 결과 넘어오면 팀 배정·인력배치 등 계획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식 수사가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 가운데 검찰이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 부를 다시 본격적으로 가동해 수사를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3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와 합해 총 11개로 늘어난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주목된다.

특검팀 대변인은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8일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포관계 여부 결정”이라며 “특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공포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검팀이 이날 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 의혹 등 사건을 넘겨오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관련 사건 수사를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등에 맡기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에 착수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특수본에 수사를 다시 맡기는 방안이 효율성 등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 내용을 정리해 3일까지 넘기면 이를 검토해 팀 배정과 인력 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검 피의자 검사 가운데 일부는 다시 후속 수사팀에 배치된다.

검찰은 작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수사를 우선 맡겼다. 그러나 곧바로 국정 문건이 다수 포함된 ‘최순실 태블릿PC’ 등장, 사태가 일파만파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그해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최재욱 수사 전력인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를 추가 투입, 특수본을 발족시켰다.

검찰은 다만 특검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43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등 3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상태여서 특검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작금남용 및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검팀 기소 현황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정홍기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부 *홍완선 전 국민은행 본부장 *최순실 뇌물수수, 업무방해,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 혐의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특혜 *최경희 전이대 총장 *김경숙 전이대 학장 *이인성, 류철균, 남궁근 이대 교수 *이원준, 이경옥 이대 교수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익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만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부비서관 *김상훈 전 교육문화수석 *심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청와대 비선 진로 등 *박재윤 안이제이름스 메디칼 대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김성만 전 대통령 저문외 *정기양 전 대통령 저문외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안종범 법원 청책조정수석 (뇌물수수)	* 추가기소	

특검, 위증·출석 거부자 16명 기소·입건

이재용·김기춘·조윤선·최경희 전 총장 등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더 엄한 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간의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는 위증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16명 적발(14명 기소, 1명 입건)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팀 발족 초기부터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등에서 나오는 위증 의혹과의 전성 전포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국회에서의 증인·위증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할 것을 시작으로 위증 적발에 나섰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측

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청문회에서 전면 부인한 것 역시 위증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반영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점특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총합대학장, 남궁근 전 입학처장 등이 정 씨 부정입학이나 학점 특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결론 내린 재판에 회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도 위증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박 대통령 저문을 지낸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미용 또는 성형 시술을 하고 고고도 미용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하거나

이 밖에도 검찰은 특검팀이 ‘미완의 숙제’로 남긴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도 맡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최대 수사 고비로 여겨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숙제가 고스란히 다시 넘어온 데다, 특검팀도 결국 실패한 ‘최대 난제’ 우선 수사 수사를 남겨두고 있어 남은 검찰의 수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지형이 변화무쌍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과 속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박지기자 jkpark@r-연합뉴스

本 社 人 事
▲이진택·동부취재본부 구레주재 부국장
▲장양근·전북취재본부 순창주재 부장 (3월 2일자)
▲서은중(전북취재본부 순창주재) 의원면직 (2월 28일자)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 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수업기간 : 2017년 3월 2일(수) ~ 2017년 6월 10일(토)
*매주 목요일 주간 10:00 ~ 12:00 야간 19:00 ~ 21:00
*수 강 료 : 20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gel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 062)230-7700 ~ 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 무료공개 강의일시 : 3월 2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제 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7년 3월 17일 (금) 16:00
- 장 소** :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중동, 해운빌딩 5층) 본사 회의실
- 보고사항**
가. 영업보고 나. 감사보고
-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29기 영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치 못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광양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상 용 (직인생략)